

‘잇몸 야구’ 반전 신호탄...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KIA 주간 전망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전반기 마지막 승부처를 맞는다. 이번 주 SSG와 롯데를 상대로 치르는 홈 6연전은 상위권 판도 재편의 분기점이자, 3위권 진입을 향한 최대 고비다.

30일 현재, KIA는 시즌 성적 4승 3패 3무로 리그 4위에 자리하고 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도 이른바 ‘잇몸 야구’로 버티내며, 6월 들어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에는 키움과 1승 1무 1패를 나눈 뒤, 주말엔 2위 LG를 상대로 위닝시리즈를 거뒀다. 주간 성적 3승 1무 2패. 흐름은 안정적이고, LG전 승리로 분위기는 한층 더 달아올랐다.

이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KIA는 상위권과의 격차도 눈앞까지 좁혔다.

1위 한화와의 3.5경기, 2위 LG와의 2.5경기, 3위 롯데와는 불과 1.5경기 차다. 여차하면 순위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거리다.

반면, 5위 kt·6위 SSG와는 1.5경기, 7위 삼성과는 3경기 차. 중위권 팀들과의 격차도 아직 좁출하다. 완전히 따돌렸다고 보기엔 이르다.

결국, 이번 6연전은 상위권 입성의 교두보가 될 수도, 반대로 다시 중위권에 무릎 꿇을 수도 있는 갈림길이다.

KIA의 전반기 일정은 다음 주 주중 한화 원정 3연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남은 9경기 중 출발점은, 7월 첫째 주에 열리는 이번



지난달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원정경기에서 위닝시리즈를 가져 온 KIA 선수단이 경기 후 승리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백업·신예들이 쏘아올린 희망...SSG·롯데 상대 홈 6연전 사활건다 ‘뜨거웠던 6월’, 1위 한화와 고작 3.5게임차 “올라갈 데까지 가보자”

광주 홈 시리즈다.

먼저 주중에 만날 6위 SSG는 팀 타율이 시즌 내내 하위권에 머물러있지만, 투수진 안정감은 리그 최정상급이다. 그만큼 마운드 힘에 의존하는 팀 컬러가 뚜렷하다. 특히 불펜은 6월 ERA 2점대를 기록하며, 리그에서 가장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KIA로선 경기 초반에 선발진을 공략해 흐름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3승 3패 1무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

이어 주말에 맞붙을 3위 롯데와의 3연전은 전반기 최종 순위 판도를 좌우할 시리즈다. 롯데는 올 시즌 가장 강력한 타선을 앞세운 팀이다. 레이에스와 고승민이 이끄는 팀

타율은 0.285로 리그 1위. KIA로선 이들의 예봉을 얼마나 차단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롯데 역시 부상자 속출로 ‘잇몸 야구’로 생존 중이다. 상대 전적은 4승 2패로 KIA가 우세지만, 롯데의 버티는 힘을 넘기 위해선 KIA도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번 6연전은 KIA의 전반기 마지막 홈 일정이기도 하다.

주중 SSG전에서 2승 이상을 거두고, 이어 롯데전까지 위닝시리즈를 챙긴다면 KIA는 3위권 진입 혹은 턱밑 추격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기세를 전반기 끝까지 이어가려면 체력 안배, 집중력 유지, 백업 자원의 경기력까지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런 균형을 실제로 지탱해주는 이들이 바로 KIA의 숨은 카드들이다.

불펜에선 이호민과 김민주 등 신예들이 실전에 안착했고, 고종욱과 김석환 등도 공격에서 제 몫을 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이 꾸준한 활약을 이어간다면, KIA는 남은 전반기 일정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막판 일정에서의 부상 관리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지금 시점의 부상은 단기 결장을 넘어 하반기 초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무리한 출전보다는 계획된 경기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KIA가 이번 주도 강팀들을 상대로 ‘잇몸 야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광주로 향하고 있다.

/주홍철 기자

프로야구 팀별 순위

〈30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한화	45	32	1	0.584	0
2	LG	44	33	2	0.571	1
3	롯데	43	34	3	0.558	2
4	KIA	41	35	3	0.539	3.5
5	SSG	39	36	3	0.520	5
6	kt	40	37	3	0.519	5
7	삼성	39	39	1	0.500	6.5
8	NC	35	37	4	0.486	7.5
9	두산	31	45	3	0.408	13.5
10	키움	25	54	3	0.316	21

KIA 올라·최지민·김태균 올스타 무대 뒀다

감독 추천 선수 선정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감독 추천선수 명단이 30일 확정됐다.

나눔 올스타 지휘봉을 잡은 이범호 KIA감독은 소속팀 선수 3명을 직접 추천, 올스타전 무대에 함께하게 됐다.

KIA에서는 외국인 투수 올라와 불펜 최지민, 포수 김태균이 감독 추천선수로 선발됐다. 이범호 감독이 이끄는 나눔 올스타에는 이들 3명을 포함해 김영우, 박명근, 김현수(이상 LG), 이도윤, 문현빈(이상 한화), 배재환, 김형준, 김주원(이상 NC), 주승우, 하영민(이상 키움) 등 총 13명이 감독 추천선수로 선정됐다.

이로써 KIA는 팬·선수단 투표로 뽑힌 김도영(3루수), 박찬호(유격수), 최형우(지명타자)와 감독 추천 선수 3명을 더해, 총 6명의 올스타 선수를 배출했다.

다만, 김도영은 부상으로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대신 해당 포지션 차점자인 키움 송성문이 올스타전에 참가하게 됐다.



올라



최지민



김태균

〈KIA 타이거즈 제공〉

감독 추천선수 중 김태균은 6번째 올스타전 출전으로, 김현수에 이어 두 번째로 출전 횟수가 많은 선수가 됐다. 최지민은 3년 연속 올스타 선수로 선정됐고, 올라는 KBO 리그 데뷔 첫 해에 올스타 무대에 입성하게 됐다.

이번 2025 KBO 올스타전에는 전체 50명의 선수 중 23명의 선수가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드림 올스타에서는 배준호, 디아즈, 고승민, 전민재, 레이에스(이상 베스트 12)와 이

호성, 최승용, 오명진, 안현민, 권동진, 조병현, 이로운, 조형우(이상 감독 추천선수) 등 13명의 선수가 첫 올스타 출전이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쏜세, 김서현, 이주형(이상 베스트 12), 올라, 김영우, 박명근, 이도윤, 문현빈, 배재환, 주승우(이상 감독 추천선수) 등 10명이 처음으로 올스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5 KBO 올스타전은 오는 11·12일 한화생명볼파크에서 개최된다.

/주홍철 기자



30일 열린 LPGA 투어 다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합작한 이소미(오른쪽)와 임진희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완도 출신’ 이소미·제주도 출신 ‘임진희’

LPGA 다우 챔피언십 우승 합작

‘2인 1조’ 경기, 한국선수 첫 우승

‘제주도 출신’ 임진희와 ‘완도 출신’ 이소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 50호, 51호 우승자가 됐다.

임진희와 이소미 조는 30일 열린 LPGA 투어 다우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만 8개를 합작하며 8언더파 62타를 쳤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0타를 기록한 임진희-이소미 조는 텍사 토폴스-메건 강(이상 미국) 조와 연장전을 치러 첫 홀인 18번 홀(파3) 버디로 우승을 확정했다.

LPGA 투어에서 유일한 2인 1조 경기인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한국 선수가 LPGA 투어에서 우승한 것은 김아림(2월), 김효주(3월), 유해란(5월)에 이어 임진희, 이소미가 네 번째다.

임진희와 이소미는 모두 LPGA 투어 2년 차로 이번 대회를 통해 첫 우승 기쁨을 누렸다.

이로써 LPGA 투어에서 역대 한국 국적 선수 우승자는 51명으로 늘었다.

한국인 첫 LPGA 투어 우승은 1988년 3월 고(故) 구옥희 전 KPGA 협회장이 스탠더드 레지스터에서 달성했다.

이후 2021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고진영이 우승하며 한국 국적 선수 통산 LPGA 투어 200승 금자탑이 세워졌다.

이때까지 한국인 챔피언이 48명이었고, 이후 유해란이 49번째 우승자로 등록한 데 이어 이날 임진희와 이소미가 동시에 50호 챔피언 고지를 밟았다.

/연합뉴스

전남 복싱 손지후·추도윤 ‘태극마크’

오는 10월 제3회 청소년아시아경기대회 ‘금빛 도전’

전남 복싱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주 손지후(나주 손복싱), 추도윤(전남기술과학고 1년)이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손지후와 추도윤은 지난달 28일 충남 청양군 민체육관에서 열린 2025 제3회 청소년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각각 -66kg급과 -80kg급에서 1위를 차지했다.

손지후는 전국의 강호들을 연파하며 결승에 오른 뒤 박시운(부산 카이안복싱체육관)과의 결승에서 접전 끝에 3대2 판정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손지후는 지난 5월 열린 제5회 전

국소년체육대회 은메달에 이어, 이번 선발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체급 최강자다운 모습을 과시했다.

추도윤도 백준혁(경북 금오고)과의 결승에서 3라운드 한차례 다운을 빼앗는 등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RSC승(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는 경기)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손지후와 추도윤은 오는 10월 바레인에서 열리는 제3회 청소년아시아경기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 ‘금빛 도전’에 나선다.

/박희중 기자



2025 복싱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추도윤(왼쪽)과 손지후

〈전남체육회 제공〉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한국선수 우승 일지		2023년 이후
2023년	고진영	HSBC 월드 챔피언십 피온티어스(2승)
	유해란	월마트 NW아칸소 챔피언십
	김효주	아센티스 LPGA
	양희영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2024년	양희영	KPMG 여자PGA 챔피언십
	유해란	FM 챔피언십
	김아림	롯데 챔피언십
2025년	김아림	윌트 그린스 배저스
	김효주	포드 챔피언십
	유해란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
	임진희·이소미	다우 챔피언십
LPGA 투어 2인 1조 경기 한국선수 첫 우승		